

## 황수연 개인전 《파츠 PARTS》



〈온수〉  
2020  
종이  
17x24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황수연 개인전 《파츠 PARTS》  
전시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1월 29일(금)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종이 조각 9점

###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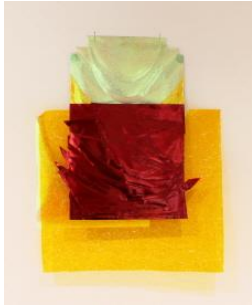
##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1월 14일(목)부터 1월 29일(금)까지 **황수연** 개인전 《파츠 PARTS》를 연다. 황수연은 종이와 모래, 알루미늄 호일 등 비전형적 물질들을 조각의 재료로 끌어들인다. 재료의 성질을 몸으로 겪어내며 작업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각적 실험을 거듭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로 만든 연작 〈온수〉(2020)와 〈녹는점〉(2020), 설치 작업 〈X〉(2020) 등을 선보인다.

황수연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갤러리AG(서울)에서 첫 개인전 《당신의 주머니 속에 당신의 단어 속에》를 선보였다. 금호미술관(서울), 공간 가변크기(서울), 두산갤러리(서울, 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금호미술관(서울), SeMA벙커(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금호창작스튜디오(서울), 금천예술공장(서울), 두산레지던시(뉴욕) 등의 레지던시에 입주한 이력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 2. 작품 소개 및 전시 전경

### ■ 주요 작품



〈온수〉  
2020  
종이, 비닐  
30.5x24cm



〈온수〉  
2020  
종이  
27x17cm



〈온수〉  
2020  
종이  
17x24cm



〈X〉  
2019-2020  
종이에 인쇄, 접착제  
125(h)x77.5x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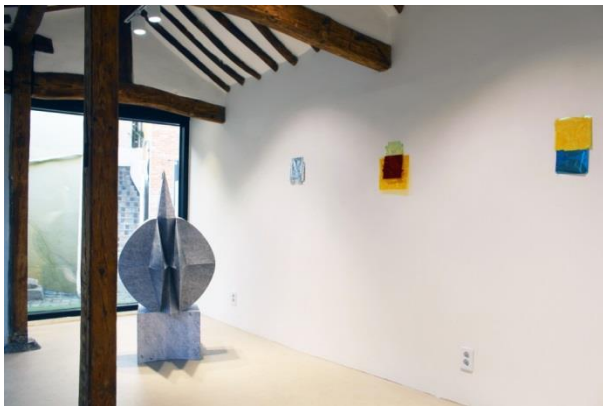


〈녹는점〉  
2020  
흑연, 종이, 스테이플러 심  
45.5x49.2cm



〈녹는점〉  
2021  
흑연, 종이  
53x67cm

###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 3. 전시 서문

#### 잠시, 부분이 전체가 된다

박미란 | 큐레이터

취미로 옷을 짓는 작가의 작업대 위에 옷 본을 닮은 그림들이 쌓인다. 천을 재단하던 곡자로 그리고, 가위로 오려낸 종이 도형들. 정갈하게 마름질한 조각 화면이 만들다 만 옷처럼 자유롭다. 새까맣게 두터운 연필그림은 마치 낫선 동물의 가죽 같다. 작가의 시간을 상상해본다. 황수연은 물질에 삶을 불어 넣는다. 재료가 이를 미지의 몸을 위하여 성심껏 피부를 지어 입힌다. 시간을 들일수록 튼튼해지고, 흑연을 먹일수록 견고해진다. 그림이 작가의 손을 딛고 일어선다.

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녹록지 않다. 유연해 보이지만 쉽게 통제할 수가 없다. 질기게 버티다 구겨지고, 흔들리다 풀썩 넘어진다. 황수연은 "신체와 힘을 겨루는 재료"<sup>1</sup>로서의 종이를 본다. 지나치게 무겁거나 단단하지 않아 맨손으로 다룰 수 있는 한편 제 나름의 결이 있어 고집스럽다. 황수연은 재료를 '겨어내며' 작업한다. 흑연과 종이, 오일 파스텔 등의 도구가 주체성을 지닌 대상으로서 다루어진다. 평면과 입체가 서로를 참조하며 자라난다. 완성된 화면은 또 다른 작업의 소재가 된다. 섞이지 않는 것들이 뒤섞이며, 지속적으로 순환한다.

<녹는점>(2020) 연작은 종이를 채집해 만든 표본들 같다. 반사광을 품은 색종이와 흑연으로 메운 도화지가 저마다 낫선 유기체의 모습으로 박제된다. 본연의 정체가 녹아 새롭게 덩어리진다. 무너진 조각이 모여 또 다른 형상이 된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종이들은 줄곧 작업대 위에 머물렀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갈등하기보다, 정서적으로 몰입했을 테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며 세심한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한층 미시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순간에 완전히 몰두하면 보통의 시간은 산산이 부서진다. 서사는 더 이상 선형으로 흐르지 않는다. 형태가 선택적으로 수집되고, 재배열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일부만을 본다.<sup>2</sup> 커다란 우주의 작은 파편마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세상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모양의 진실이 있다. 본질에 대한 물음은 크고 작은 삶의 범주를 유연하게 관통한다. 의미 있는 깨달음은 때로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온다. 물감을 섞으며 온수에 녹아 없어지는 음식의 나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색종이를 오리다 못 다 지은 옷감의 자투리를 매만지는

<sup>1</sup> 황수연과의 대화,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4시경.

<sup>2</sup> POPE, ALEXANDER. *An Essay on Man*. Edited by JONES TOM.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Accessed December 30, 2020. doi:10.2307/j.ctvcms5r.

것처럼. 종이를 몸을 짓는 작가의 책상 위,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간다. 조각이 모여 형상이 되고, 순간이 쌓여 부피가 된다. 가냘픈 것들이 녹아 두터워진다. 그리고 이내 다시 가뿐해진다. 손끝을 향하는 좁은 시야가 오직 전부인 이곳에서 잠시, 부분이 전체가 된다. 무의미한 조각들이 의미가 된다.

#### 4. 작가 약력

##### 황수연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 2020 황수연: 파츠,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머테리얼 매니페스테이션, 두산갤러리, 뉴욕  
허밍 헤드, 두산갤러리, 서울
- 2017 세 개의 이빨, 공간 가변크기, 서울  
도는 달걀, 금호미술관, 서울
- 2014 당신의 주머니 속에 당신의 단어 속에, 갤러리AG, 서울

##### 주요 단체전

- 2020 7인의 지식인, 웨스, 서울  
너머의 여정, SeMA벙커, 서울  
동그라미에게, 의외의조합, 서울
- 2019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생각한다, 아트스페이스3, 서울  
변방으로부터, 양지리 레지던시, 철원  
디케이드 스튜디오, 두산갤러리, 뉴욕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 2018 세 번 접었다 펼친 모양, 브레가 아티스트 스페이스, 서울
- 2017 우리시대의 추상, 챔터투, 서울  
사물들: 조각적 시도, 두산갤러리, 서울
- 2015 오늘의 살롱 2015, 커먼센터, 서울  
주목할만한 시선, 금호미술관, 서울

- 2013 공유된 고립, 금호미술관, 서울
- 2012 공장미술제, 장항읍 일대, 서천
- 2011 도시재생,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 2010 광장 모퉁이를 돌면,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서울  
음?, 갤러리2, 서울  
이해를 향한 오해, 송원아트센터, 서울
- 2009 가변크기 2, 보다갤러리, 서울

#### 레지던시

- 2019 두산레지던시, 뉴욕
- 2015 금천예술공장 7기, 서울
- 2013 금호창작스튜디오 8기, 서울